

□ 워블던 효과가 나타나는 국내 은행산업

1. 외국계화된 국내 은행

○ 금년 11월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업 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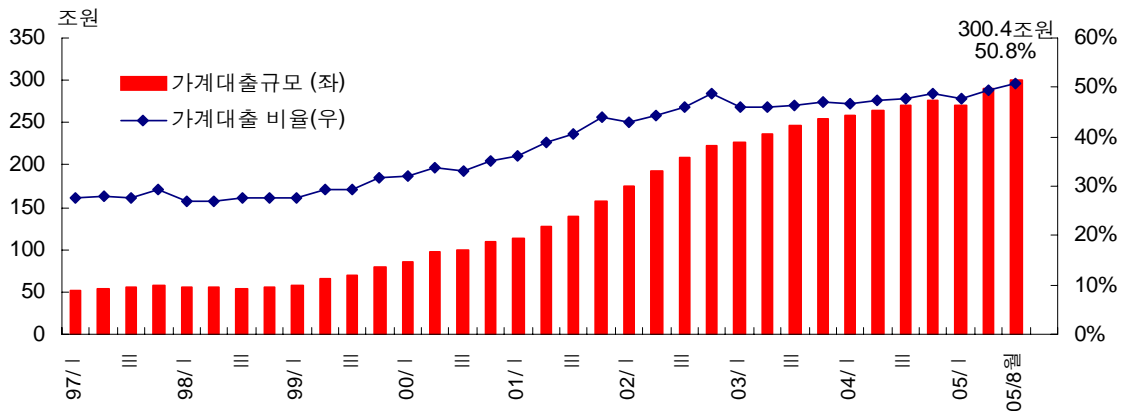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외국 私募 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을 잇따라 인수하여 2005년 10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
 -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1999), 칼라일펀드(2000), 론스타펀드(2003) 등의 미국계 私募 투자펀드가 각각 경영권을 인수
 - 이후 '04년 2월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05년 1월 영국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은 제일은행을 인수
- 우리금융을 제외한 국민, 신한지주, 하나 등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빠르게 상승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약 78%를 보유
 -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도 외국계 지분율이 빠르게 증가

< 국내 상장 일반은행의 외국인지분율 현황 >

은행		외국인 지분율 (2005.11.10)	비고	
시중 은행	비외국계	국민은행	85.8%	
		신한지주	64.0%	조흥은행 포함
		하나은행	76.6%	
		우리금융지주	11.7%	예보지분(78%) '08.3월까지 민영화
	외국계	SCB제일은행	100.0%	상장폐지
		외환은행	74.3%	2005.11월부터 론스타지분 매각가능
		한국시티은행	100.0%	상장폐지
지방은행 ('05.10.21 현재)	대구은행	60.1%		
	부산은행	60.9%		
	전북은행	27.4%		

- 2005년 10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자산 중에서 외국계 비중은 66%로 외국 자본의 지배력이 매우 높은 상황임
 - 2005년 6월말 현재의 각 은행의 자산 규모를 가중평균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비중을 계산하였음
-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함
-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외국계화와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비중이 1997년말 29.2%에서 2005년 2/4분기 50.8%로 급증
 - 2005년 5월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4.3조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176.2조원(82.2%)임
 - 2005년 2/4분기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90% 이상 증가

<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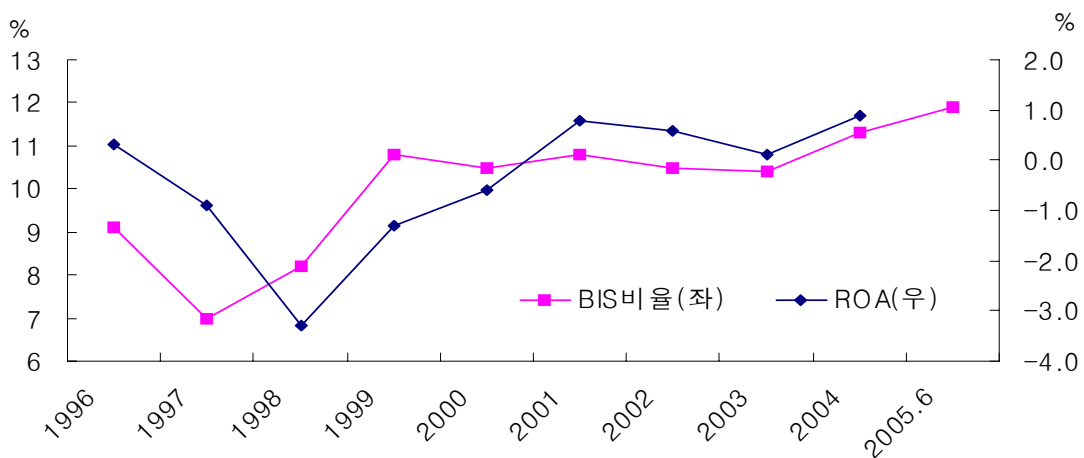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특히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수익성이 높은 부유층 시장을 적극 공략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데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교차판매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가능함 (예컨대, 은행 수익의 80%가 상위 20%의 부유층 고객에서 발생)
 - 200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PB 및 VIP뱅킹 수신액은 각각 48.5조원과 141.0조원으로 전체 가계수신액의 17.4% 및 42.3%를 차지 (한은 자료)

2.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

- 외국자본의 진출은 외환위기 직후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에 기여했으나,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금융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 효과는 크게 퇴색
-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국내은행의 해외 매각, 공적자금투입, 금융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스템은 빠르게 안정
 -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과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부실채권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내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
 - 외환위기 이후 2005년 5월 현재 국내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6.8조 원임(출자 34.0조원, 출연 13.8조원, 자산매입 14.4조원, 부실채권매입 24.6조원)

< 일반은행의 안정성 및 수익성 지표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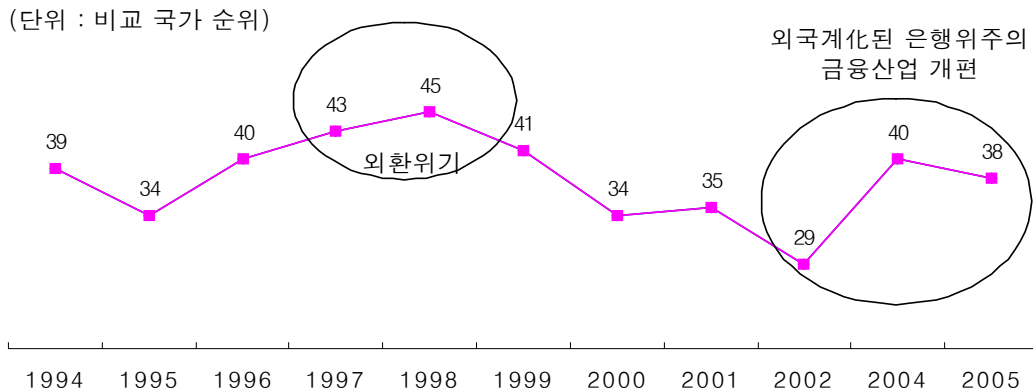
-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업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선진금융기법(마케팅,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도입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화, 감독당국의 금융감독 기법, 관련 금융법규 및 인프라 선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음

- 그러나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국내 소매금융시장을 점령하는 등 '웬블던 효과'만 부각되고 있음

웬블던 효과(Wimbledon Effects)란 세계 最古의 역사와 명성을 지닌 웬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의 영국 선수보다는 외국 선수들이 트로피를 석권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

- IMD(스위스 국제 경영대학원) 발표 금융산업 부분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외국계화된 은행중심의 금융산업으로 개편된 최근 2년간 그 순위가 높아졌음

< IMD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 추이 >



자료 : IMD.

주 : 2003년 순위(14위)는 인구 2,000만명 이상의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교에서 제외되었으며, 2005년 발표 조사대상 국가는 60개국임

- 더욱이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면서 지배력(금융주권) 상실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음
 - (은행의 공공성과 공익적 역할 약화)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독자 행동을 취하거나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 은행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국가 인프라에 해당하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전달 경로이며,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국민후생 증대와 같은 공익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은 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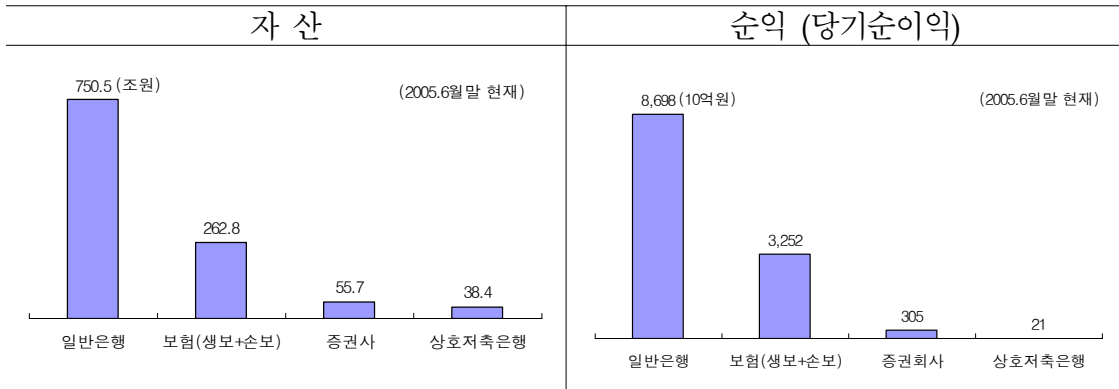
- 국내 금융기관 인수 후 상장 폐지는 해당 기업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감독당국의 감독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도 어렵게 됨
- (자금순환 기능 상실) 가계대출 확대 및 부유층 시장 공략 등에 치중된 영업활동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를 반영하듯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말 현재 회사채 AA- 등급과 BBB- 등급의 경우 여전히 높은 3.81%p임)
 -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뱅킹이 강화되는 반면, 서민금융은 매우 위축되고 있음
- (국부유출 및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 高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한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은행 보유 기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 은행들은 부실여신 감소, 수수료 수익 증대, 경비절감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2004년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4,000억원 수준)
 - 외국금융펀드와 외국기업의 연계를 통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 (동아건설 최대 채권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동아건설 입찰 참여)
-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에 배치) 은행업 위주의 글로벌화는 자산운용업 위주의 특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됨
 - 동북아 경제의 위상, 역내 막대한 외환보유고, 고령화 및 부유층 증가 등으로 잠재적 자산운용업 특화 금융허브의 성공 가능성은 높음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소매 금융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운용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는 다른 방향임

한·중·일 3국의 GDP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동북아 지역경제가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 커지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상승할 전망

3. 内外 자본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 금융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매우 절실하며, 현재의 외국계화된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금융산업 내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시급함
-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차원에서 제조업 외에 대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급한 시점에서 금융허브 구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외국계화된 은행중심의 금융산업으로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동북아 금융중심 국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산업의 은행집중 현상은 소규모 충격에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지만 커다란 충격이 닥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험이 상존
 - 은행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관행이 투신·증권 업무에도 고착될 경우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목표는 더욱 어려워지며, 자금의 선순환은 더욱 막히고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 초래
- 은행업의 内外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임
 - 외국자본에 지배되고 있는 멕시코의 은행의 경우 건전성은 제고되었으나 국가 경제를 위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상장폐지에 따른 투명성 부족에 따른 금융산업의 감독·감시 문제 등 금융주권 상실 우려감 표명 (Wharton School의 보고서)
 - 지급결제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지배력이 커질 경우 곧 국가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은행업은 자산 규모, 순이익 등에 있어서 타 금융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주하고 있음

< 금융산업별 자산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 (은행업의 균형 발전 유도) 지급결제 기능을 지니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은행업에 적절한 비율의 内外 자본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2008년까지 민영화계획이 잡혀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내국 자본에 매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태에서 우리금융회사의 예보 지분이 외국자본에 매각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 자산의 80%가 외국인이 보유하는 셈이 됨
-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국내자본(외환보유고, 범한민족자금, 연기금, 산업자본 등)의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는 방법
- 한편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외국자본 또는 외국계화된 국내은행 보다는 국내자본 및 국민자본에 분산매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특수은행이나 국내 지방은행 등과 합병하여 국내자본 대형 시중은행으로의 탄생을 유도

- 농협, 우체국예금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실상 은행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을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할 필요

- 농협중앙회를 지주회사로 하고 산하 단위조합을 자회사 네트워크化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서 우체국예금의 민영 서민금융기관화 추진

멕시코와 같이 외국계 은행이 은행업을 독점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 자본의 은행업 지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1년 11월 국적은행인 키위뱅크(Kiwibank)를 설립,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매금융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 전환과 지급결제 기능의 다변화

- 국내 지방은행과 우량저축은행을 대형화하여 지방소재 시중은행으로 육성
-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및 대형 우량 카드회사 등에도 지급결제기능 허용
- 대형 유통망을 지닌 슈퍼마켓 등에 지급결제은행 설립 허용 검토

영국의 대형슈퍼마켓인 세인즈베리와 데스코는 각기 세인즈베리은행과 데스코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이토요가도 그룹은 Seven Bank (Seven-Eleven은 이토요카도 그룹의 자회사임)라는 지급결제은행이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육성) 정부 정책, 국가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축을 자산운용업과 투자은행으로 방향 선회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시장을 대상으로 자산운영업 및 자산관리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투자은행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높음

- 국내 금융산업의 축을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으로 전환하여 은행이 기피하는 기업금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내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투자은행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도 은행에서 자산운용·관리업이나 투자은행업으로 선별 유도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